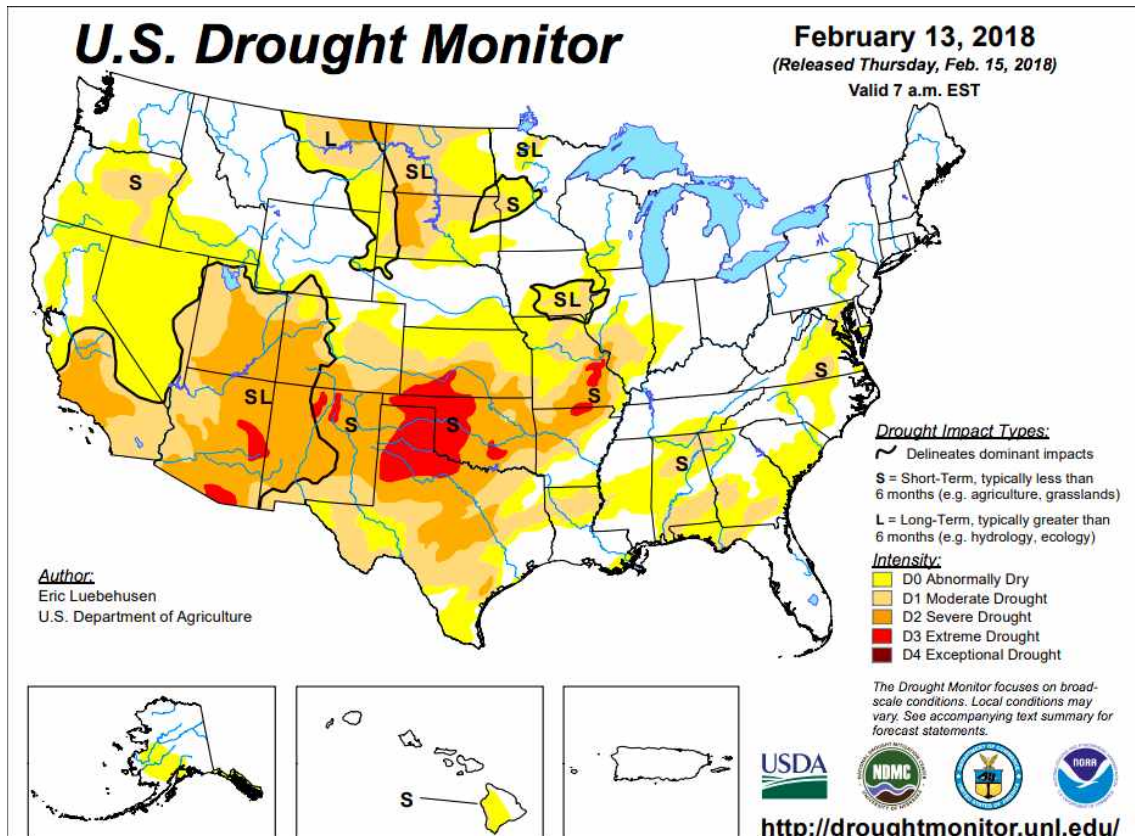


2월 2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8)

□ 미국 기후 현황(2/11~2/17)

남부 평원 일대에 내린 비는 그쳤고, 이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던 가뭄은 여전히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남서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이 지역 고산 지역의 적설량은 여전히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서부 일대에서도 비가 내렸지만, 캘리포니아 인근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북부 일대에서는 눈이 내리면서 겨울밀 재배지 일대를 덮어 주어 추위로부터 겨울 밀을 보호해 주고 있다. 북부 일대에서는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남동부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일리노이 북부 등에서는 기온이 0°F 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오하이오, 대서양 연안 중부 일대, 뉴잉글랜드 남부 등에서는 1~3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다. 플로리다 일대에서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2/12~2/18)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걸프만 연안 일대와 남동부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평균 기온이 60~70°F 내외를 기록했다. 북동부 일대에서도 기온이 평년보다 5°F 이상 높았다. 반면,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0°F 정도 낮았다. 중부 일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며,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북부 등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오하이오와 캐스케이드 산맥 북부 일대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2/11~2/17)

■ 유럽: 대서양에서부터 생겨난 비구름이 남동부 일대를 지나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5~45mm,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반면, 북동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스페인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작물의 생육 상황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최근 찾아온 추위로 인해 성장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다.

■ 구소련(서부):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동아시아: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면화 재배지에서는 별도의 용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3~5°C 정도 높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에서 40°C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남부에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다. 주 초반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여 낮 최고기온이 20°C 초반까지만 오르내렸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북부 일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중부 일대에서처럼 북부 지역에서도 주 초반에는 기온이 비교적 선선했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후반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 브라질: 북부의 Mato Grosso 및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Mato Grosso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월 16일 기준 대두의 수확률은 4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p 낮은 수치이다. Bahia, Minas Gerais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반대로 Sao Paulo, Mato Grosso do Sul, Santa Catarina 등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